

거리두기 해제후 '우울위험군' 감소

2분기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우울위험군 5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우울위험군은 줄어들었지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우울위험군은 5배, 자살생각률은 3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았다.

6월 기준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2%)과 비교하면 5배가 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30대가 4.2%로 가장 높았고, 40대(17.0%), 50대(16.0%), 20대(14.3%), 60대(13.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18.6%로 남성(15.3%)보다 더 높았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우울위험군이 22.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11.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우울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이혼 등)가 20.6%로 기혼(14.3%)에 비해 높았다.

자살생각률은 6월 기준 12.7%로 3

월(11.5%)에 비해 증가했다. 코로나19 초기(2020년 3월 9.7%)에 비해 여전히 높았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6%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30대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14.8%), 40대(13.1%), 50대(9.8%), 60대(7.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살생각률은 여성이 높은 데 비해 동 조사에서는 꾸준히 남성의 자살생각률(13.5%)이 여성(11.9%)보다 더 높았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살생각률이 16.1%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집단(9.2%)에 비해 약 7% 높았다. 1인 가구의 자살생각률이 18.2%로 2인 이상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이혼 등)가 16.9%로 기혼(9.8%)에 비해 높았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은 각

각 1.2점과 3.6점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조사에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도 2022년 6월 조사 결과 6.2점(총 15점)으로 지난해 3월(8.1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연구진은 "두려움과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울 감소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우울감 감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소득 감소, 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이 악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경제적·사회적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로 경제적 지원(2.05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감염병 관련 정보(1.94점), 개인 위생용품(1.89점)이었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522함, 단정운용 역량 평가대회'우수함정' 선정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한 단정운용역량 평가대회 중형함 부문에서 완도해양경찰서 522함이 우수 함정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업무 지속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에서 추진중인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무안소방 생활안전순찰대, 노후 싱크대 교체에 참여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지난 7월 롯데아울렛 남악점에 후원하는 관내 독거노인의 주택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복한 집 만들기'에 참여한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양소방, 폭염시기 축사화재 예방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관내 축사 32개소를 대상으로 폭염시기 화재를 예방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나주경찰,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8일 나주시 노인연 나주 시니어클럽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주택·상가 2682건 침수·가축 2만마리 폐사...이재민 600명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밤새 늘어 600명에 달한다. 물에 잠긴 주택·상가도 2682동이나 된다.

가축은 2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구장 면적의 약 325배에 이르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봤다.

호우가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복구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이다. 직전 집계치인 오전 6시 기준과 동일하다.

인명 피해는 서울, 경기, 강원 3개 지역에서 나왔다. 이재민 600명만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145명이다. 경기 85명, 인천 44명, 강원 9명, 서울 7명이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718세대 1232명이다. 오전 6시의 724세대 1253명보다 6세대 21명 감소했다. 이 중 200세대 244명이 귀가했지만 피해가 심각해 집에 머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518세대 988명은 아예 집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못한다.

현재 871세대 1471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숙박시설 등 임시주거시설 103개소에 머물고 있다. 35세대 67명은 친인척집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재민 수는 411세대 600명이 됐다. 오전 6시의 398세대 570명보다 13세대 30명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08세대 230명, 인천 4세대 9명, 경기 199세대 361명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23세대 50명만이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88세

사망자 9명·실종자 7명...부상자 17명

대 550명은 미귀가 상태다. 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는 천막과 응급·취사 구호세트 등 2만1000여점이 제공됐다.

방역물품 1700점, 생수 6480점, 간식 6656점, 쉼터 226동 등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성금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 등 모집기관과 협의 중이며 의연물품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시설 피해는 총 2830건 접수됐다. 오전 6시의 2800건보다 30건 증가했다.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2752건이다. 이 중 2637건(93.2%)만 응급복구가 끝났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응급복구를 위해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은 5개 시·도 1019대와 인력 2897명이다. 국방부는 수도권 지역에 수방사, 특전사, 52사단 등 11개 부대 1330명과 장비 37대를 지원했다.

피해 공공시설로는 경기와 강원 지역의 사면 30곳이 유실되고 경기 제방 8건이 폭우에 떠내려가 사라졌다. 방송·통신 9만2410회선도 훼손됐지만 복구됐다.

상·하수도 시설 10건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용 울타리 6건도 피해를 봤다.

역사 선로 침수는 10건, 철도 피해는 6건 각각 접수됐다. 정부는 전날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자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및 단체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이후로 늦춘 바 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상가 2682동이 물에 잠겼다. 오전 6시의 2676동보다 6동 늘었다. 서울 2419동, 인천 133동, 강원 4동, 경기 126동이다.

개인 소유의 옹벽 붕괴 7건, 토사 유출 32건이 각각 발생했다. 산사태는 27건 있었다.

가축은 2만533마리가 폐사했다. 농작물은 추곡장 면적(0.7ha)의 약 325배인 232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총 43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1만4876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직전 집계치의 41건 1만3854가구 보다 2건 1022가구가 증가했다. 현재 복구율은 91%(37건 1만 3537가구)이다.

소방 당국은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742건의 안전 조치를 끝마쳤다. 2091개소 86599의 배수도 지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음주측정 물뿌리고 거부한 4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B경위에게 물을 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경위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며 입 행굼용 생수를 건네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듭 불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할 경우 경찰의 치안 임무 수행에 지장이 갈 수 있다"며 "공권력을 보다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형택기자



집기류 치우는 장병들

서울 지역에 폭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청룡동 인근 주택가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 소속 장병들이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 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방화과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도심 속 휴가를 즐기고 있다